

해외저널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신비

제랄드 L. 시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참목하심에 대해 고민한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내버려두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마음 한 구석을 찌르는 미묘한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잊고 싶어 했던 개인적인 경험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낯은 질문들이 다시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질문이 터져 나온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 아니면, 듣지만 응답하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 - 하나님께 기도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Young Life지의 전(前) 이사장 밥 미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시 시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최근 설교에서 자신이 1955년 5월에 받았던 한 편지를 인용하셨다. 그 편지는 짐 엘리엇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엘리엇은 아우카스 인디언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젊은 아내와 갓 난 딸아이와 함께 에콰도르에 막 도착한 뒤였다.

아우카스족은 오지 깊숙이 살고 있었고, 외부인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엘리엇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이 큰 아마존의 땅에 복음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감격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친구이자 사역의 동반자인 에드 선교사가 벌써 아우카스족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고 적었다. 흥분과 동시에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엘리엇 선교사는 밥 목사님께 기도를, 특히 에드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에드가 떠난 지역 근처에서 요즘 아우카스족이 정찰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네. 그러니 에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 더 큰 능력을 주시도록 말이네."

밥 목사님은 그의 친구들의 안전과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용감한 친구들, 곧 에드 선교사와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또 다른 세 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종족에 의해 살해됐다. 밥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듯이 보였다.

기도응답, 의심스러운 약속인가

나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이보다는 덜 충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젊은 크리스천이 진로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지만 인도하심에 대한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 병든 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한 어머니는 암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어린 딸을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다. 한 노부부는 이웃집에 사는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여우 굴 크리스천'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들도 쉽게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매우 신실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눅 11:9).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해주 시겠다고 가르치셨다(요 14:14).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것은 더 깊은 실망으로 우리를 이끈다.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들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예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쓸모없는 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시길 '정말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우리의 기도 중 어떤 것들은 응답하시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순전함에 따라 하나하나를 평가하며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시는가? 아니면 그분은 마치 변덕스러운 왕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분인 것일까? 기도는 단순히 헛되고 공허한 것일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외침에 불과한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자'만은 아니다. 나 역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해왔다. 나의 아내인 린다는 대가족을 이루길 원했지만 임신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길 기도했고, 나의 기도는 결국 응답 받았다. 6년 동안 린다는 네 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다. 그녀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벅찬 열정과 자신감으로 감당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했다. 1991년 9월 27일, 그날 아침도 나는 동일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뭔가가 잘못 되어 버렸다. 만취한 운전자가 우리의 미니 밴으로 돌진했고, 린다와 딸 다이앤 제인,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방문하러 왔던 나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도, 나는 무엇이 그날을 평소와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내가 무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것일까? 내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서 등을 돌리셨단 말인가? 왜? 나는 천 번 이상 내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아무런 대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는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관점들을 연구해 보았다: 의도적인 죄(시 66:18), 인내의 부족함(눅 11:5-8), 이기적인 동기(약 4:3).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 분명 우리의 잘못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많은 설교자와 책들이 조언을 해왔다. 우리가 그분께 파렴치하게 불순종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나를 맥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자아성찰'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는 '개인적인 죄'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축소해 버리기

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그날 아침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나는 수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애를 썼다. 그리고 결국 절망 속에서 기진맥진한 채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아마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만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가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한 것,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도하곤 했던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대신 하나님께 자비를 외쳐 구했던 죄인 세리를 품어주셨다(눅 18:9-14).

기도응답의 힌트와 실마리

그렇기에 나는 아직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어쩌서 어떤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는가?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신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여기저기에서 찾고 있지만, 정확한 대답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멀리 계신 듯 보일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시 88:102).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절망과 실망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이 애가(哀歌)이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매우 감정적이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그러한 시편으로 기도하셨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막 15:34).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원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울 때에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그들의 한탄을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요 11:1-44).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계 21:4).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듯이 보여도 우리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고하신다.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여성처럼 기도하려고 명령하신다. 그 여성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재판장에게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했다(눅 18:1-8). 아무튼 인내 그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설득’당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계속 간구하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모를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보면 이러한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배운다. 아이들은 갑자기 무언가를 요구하다가도 또 갑자기 잊어버린다. 아주 흔치 않은 경우, 자신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을 원하는 때에만 부모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조른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고 재삼 확인시켜 주셨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눅 11:11-12).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청을 묵살해버리는 분도 아니시다. 그분은 관대함과 후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듯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기 원하신다. 그 선물은 1주일 정도 가지고 놀다보면 사라질 값싼 ‘재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 우리가 했는지조차 모르는 기도까지도 - 에 대한 응답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유혹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는, 단지 눈을 맞추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분은 ‘선’을 위해 일하신다. 요셉이나 에스더,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생각해 보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화해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에스더가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할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 추종자들의 눈에는 메시아로서 비참하게 실패한 듯 보였던 -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즉각적인 경험과 제한된 시각으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바라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응답

밥 미첼 목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년 뒤 밥 목사님은 국제 선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옛 친구가 목사님에게 남아프리카에서 온 복음전도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다. 그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밥 목사님은 그가 몇 년 전 엘리엇 선교사와 다른 네 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아우카스 인디언들 가운데 한 명임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아우카스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평범하고 진부한 대답들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쉬운 대답이라도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년 동안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후 12:8).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 바울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그분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후 12:9-10).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신비이다. 굉장히 멋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신비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완전한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는 이 신비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제럴드 시저(Gerald L. Sittser)/ 미국 워싱턴의 스포케인에 위치한 휘트워쓰대학(Whitworth College)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1월호(통권 161호) 270-17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게재합니다(<http://durano.com/moksin>).